

# 상반기 하루 2.2명 에이즈(HIV/AIDS) 감염, 원인은 성접촉

편집실



올해 들어 하루 2명 이상의 내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이즈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동안 국내에서 하루 평균 2.2명꼴인 398명이 새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자 317명과 비교하면 25.6%가 늘어난 수치다. 이중 남성은 370명, 여성은 28명으로 남성 비율이 13.2배나 높았다. 연령별로는 청소년(15~19세)이 7명 감염됐고, 60세 이상의 노인도 34명이나 됐다. 가장 많이 감염된 연령층은 30대로 133명(33.4%)이었으며, 40대 96명(24.1%), 20대 73명(18.3%), 50대 55명(13.8%)순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가 확인된 에이즈 감염인 202명 모두가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감염인 중에는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환자가 없었으나, 남성은 41.6%인 84명이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다.

2004 내국인 신규 HIV/AIDS 감염인 성별·연령별 분포	연령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398	100.0	370	100.0	28
	0~9	0	0.0	0	0.0	0	0.0
	10~14	0	0.0	0	0.0	0	0.0
	15~19	7	1.8	7	1.9	0	0.0
	20~29	73	18.3	68	18.4	5	17.9
	30~39	133	33.4	125	33.8	8	28.6
	40~49	96	24.1	90	24.3	6	21.4
	50~59	55	13.8	49	13.2	6	21.4
	60세 이상	34	8.6	31	8.4	3	10.7

※ 발견 당시 연령임(만연령)

## 에이즈예방은 콘돔 사용이 최선의 방법

올 상반기 에이즈 감염인이 398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의 에이즈 감염인 수는 모두 합쳐 4227명(사망 773명 포함)으로 늘어났다. 에이즈 감염인 수는 2000년 219명,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 2004년 534명, 2004년 610명, 2005년 680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감염인의 감염경로를 보면 성접촉이 98.5%(3508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수혈 또는 주사로 인한 감염이 1.3%(46명)였다. 또 사망자의 70%가량인 541명이 에이즈로 사망했고, 232명이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예방에는 콘돔이 최선책"이라며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고 24시간 상담전화(1588-5448)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이즈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무료 익명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05년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에이즈 검진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2006

(2006.1~6)

내국인 신규 HIV/AIDS 감염인 감염경로별 분포	구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202	100.0	184	100.0	18	100.0
이성간 성접촉		118	58.4	100	54.3	18	100.0
동성간 성접촉		84	41.6	84	45.7	0	0.0

※ 감염경로가 밝혀진 202명에 대한 통계임

85~06

(2006.6월말 현재)

연도별 HIV/AIDS 감염인 보고현황	구분	계	연도												
			85~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6
계		4,227	410	10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610	680	398
남자(명)		3,842	365	88	93	107	111	160	194	292	363	502	557	640	370
여자(명)		385	45	19	12	17	18	26	25	35	35	32	53	40	28

※ 확진보고년도 기준임

▶ 본 통계는 2006년 6월말 통계이며,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수치 변경될 수 있음

85~06

(1985~2006.6)

에이즈 감염인 (HIV/AIDS) 감염경로별 누적분포현황	구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3,561	100.0	3,222	100.0	339	100.0
이성간 성접촉		2,131	59.8	1,801	55.9	330	97.3
동성간 성접촉		1,377	38.7	1,377	42.7	0	0.0
수혈/혈액제제							
-혈액제제		17	0.5	17	0.5	0	0.0
-국내수혈		16	0.4	11	0.3	5	1.5
-국외수혈		13	0.4	12	0.4	1	0.3
수직감염		5	0.1	2	0.1	3	0.9
마약사용자		2	0.1	2	0.1	1	0.0

※ 감염경로가 밝혀진 3,561명에 대한 통계임(기타, 무응답 등은 제외)

▶ 국내수혈: 헌혈액 모두 HIV 선별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경우임

(자료: 질병관리본부)